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



김연수
본회 이사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현재 납유량에서 잉여량을 제외하여 기준량으로 시행하여도 될까, 말까 한데 년평균에다가 가장 높은 생산량을 내는 피크(peak)기에 접하는데 농가들에게 손해를 주고 유업체만 살찌게 할 제도를 어느 누가 찬성하겠는가?

지

금 낙농상황을 보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서 호기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금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산업으로 거시안적으로 내다보아야 한다. 두 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줄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낙농진흥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전체 낙농가 중 한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매우 불리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낙농진흥회의 속셈이 의심스럽기만 하다.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 최소한 제도는 공청회를 통한 공감을 얻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몇몇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극한 반대를 하였는데 설명회를 모두 행하였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농가들의 재산권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제도는 즉각 중단하여야 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도 직접 농가대표들의 의견자체를 무시하고 숫자놀음의 이사회 진행이 과연 낙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만약 낙농진흥회를 존립시키려한다면 당장 이사 수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현재 납유량에서 잉여량을 제외하여 기준량으로 시행하여도 될까, 말까 한데 년평균에다가 가장 높은 생산량을 내는 피크(peak)기에 접하는데 농가들에게 손해를 주고 유업체만 살찌게 할 제도를 어느 누가 찬성하겠는가?

대안이 있다면 4, 5등급에 페널티를 강화해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떤 제도든지 품질향상과 물량을 조절하는 내용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볼 때 4, 5등급이 전국 물량 20~23%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품질향상을 유도해낼 수 있고 나머지는 자구력을 유지 못하고 구조조정이 되리라고 본다면 정부자금도 절감되고 다른 명목으로 전용할 수 있고 자연감산의 효과가 발생하리라 본다. (㉸)

(필자연락처 : 011-759-1343)